

“5060세대 겨냥”...유통가, 중장년층 문화강좌 ‘다채’

경제력 갖춘 ‘올드족’...주요 소비층 롯데백 광주점, ‘모델워킹’ 등 마련 이마트, ‘바른자세 운동’ 등 선배 홈플러스, 웰 에이징 트렌드 접목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쇼핑과 문화생활을 즐기는 5060세대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체가 중장년층을 겨냥한 문화센터 강좌를 선보이며 ‘올드족’ 발길 붙들기에 나섰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경제적·시간적 여유를 갖춘 5060 중장년층, 이른바 ‘올드족(young+old의 합성어)’이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르면서 ‘올드 문센(문화센터)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과거 ‘엄마들의 소통 공간’, ‘영유아 놀이방’ 등으로 인식됐던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문화센터가 이제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세대별 개성과 취향을 담은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센터의 풍경이 바뀔에 따라 유통업체도 세대별 개성을 반영한 다채로운 강좌를 선보이고 있다.

먼저 롯데백화점 광주점 문화센터는 고령층을 겨냥한 특별한 강좌들을 준비했다.

대표적으로 ‘모델워킹 강좌’가 있으며, 시니어 모델로서 워킹, 포즈, 턴, 바른 자세 등을 익혀 삶의 활력소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또 다양한 노래를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스트레스까지 해소할 수 있는 ‘노래 교실’ 등의 강의도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전통 채색화(민화), 문인화, 스케치 등의 미술 강좌 및 플라워 클래스, 인문학 등 개인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봄학기 강좌 접수는 기존회원은 이날부터, 신규회원은 23일부터 진행되며 강좌 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롯데문화센터 홈페이지(<https://culture.lotteshopping.com>) 등에서 접수 가능하다.

대형마트도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준비하는 올드족을 위한 문화센터 강좌를 다채롭게 준비했다.

먼저 홈플러스는 오는 3월 개강하는 문화센터 봄 학기에 ‘올드족’ 강좌를 기존 398개에서 725개로 82% 확대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준비하는 ‘웰 에이징(Well-aging)’ 트렌드를 접목한 강좌를 폭넓게 구성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 문화센터를 즐겨 찾았던 5060세대가 자기계발을 위해 재방문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지난 겨울 학기에 고객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조기 마감된 △셀 위 서플 댄스 △클러 스타일 등 퍼스널 진단 컨설팅 △드라마로 배우는 영어·일본어 등 실



경제적·시간적 여유를 갖춘 5060 중장년층, 이른바 ‘올드족(young+old의 합성어)’이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유통업체가 고령층을 겨냥한 다채로운 문화센터 강좌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제공

생활과 취미를 결합한 수업을 대거 편성했다.

‘저속 노화(Slow-aging)’ 콘셉트를 반영한 △생존 근육·동안 자세 만들기 △갱년기 건강식 K-푸드 클래스 △명품을 걸치지 않아도 귀티 나는 4050 뷰티 클래스 △저속 은퇴를 위한 미술·부동산 입장 클래스 △스트레스 감당을 위한 몰입 근육 키우기 등 이색 강좌도 선보인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홈플러스 동광주점, 광주하남점, 광양점, 순천점에서 문화센터 강좌를 수강할 수 있으며, 지점별로

강좌 구성은 상이하다.

봄 학기 회원 모집은 23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23~25일에는 겨울 학기 수강생을 대상으로 수강료 10%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신규 회원에게는 쿠폰 4종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연다. 홈플러스 문화센터 홈페이지(<https://mschool.homeplus.co.kr/>) 등에서 수강신청 가능하다.

롯데마트도 고령층을 대상으로 ‘다이어트 춤바 댄스’, ‘노래교실’ 등의 강좌를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롯데마트 수완점, 월드캡점, 첨단점, MAXX 상무점, MAXX목포점, 여수점 등 6개점에서 강좌를 수강할 수 있으며, 봄학기 접수는 23일부터 진행, 선착순 마감된다. 방문접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각 지점별 문화센터 데스크에서 가능하며, 지점별 접수 시간은 상이하다. 인터넷(<https://culture.lottemart.com>), 혹은 모바일(<https://m.culture.lottemart.com>)로도 신청할 수 있다.

강좌 기간은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점포별 강의 구성은 상이하다.

이마트 역시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봄학기 회원모집을 진행한다. 5060세대에 인기 높은 ‘노래교실’, ‘연필인물화’, ‘SNPE 바른자세 운동’, ‘한국화’, ‘쿠잉클래스’ 등의 강좌를 선보일 예정으로, 정규 운영 기간은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각 점포 문화센터(평일·주말 오전 10시~오후 5시)에서 방문접수할 수 있으며, 지점별 방문 접수 가능 시간은 상이할 수 있다. 인터넷(www.cultureclub.emart.com), 혹은 모바일(m.cultureclub.emart.com)로도 신청 가능하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이마트 광산(광주)점, 순천점, 여수점 등에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지점별로 강의 구성은 상이하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중기부, ‘2025 동행축제 마스코트’ 공모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2일부터 한달간 2025년 동행축제를 대표하는 새로운 마스코트를 개발하기 위한 ‘동행축제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동행축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진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협력해 개최하는 대규모 소비촉진 캠페인으로, 올해에는 연 4회 개최(3·5·9·12월) 예정이다.

올해로 6년 차를 맞은 동행축제는 국민들이 더욱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동행축제의 의의를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

공모전을 진행해 수상자(총 4명)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상금(총 시상금 1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23일 자정까지이며, 심사 과정성을 위해 캐릭터의 독창성, 공모전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캐릭터 디자인은 민간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연계 홍보, 동행축제 굿즈 제작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될 예정이다.

동행축제 캐릭터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행축제 누리집(<https://k-shoppingfesta.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소영 기자



롯데백 광주점, ‘바로 픽업 프로모션’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설 선물을 매장서 직접 구매하면 품목별 최대 55%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바로 픽업 프로모션’을 오는 27일까지 진행한다. 최근 5년간 광주점에서 판매된 명절 선물 세트 매출의 약 30%가 택배 배송 등이 마감되는 연휴 직전 마지막 5일간 판매됨에 따라 고객이 직접 매장에서 구매 후 들고 가기 좋은 ‘바로 픽업’ 상품들을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제안한다. 축산, 수산, 청과 등 총 48개 품목을 최대 55% 할인된 가격으로 제안하며 20만원 이상 구매 시 5%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하는 사은행사도 동시에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화순 키즈라라,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선정

교육부·상의, 2027년까지 인종 30여개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화순 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 ‘키즈라라’는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란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인증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체험처의 성격 △환경 및 안정성 △프로그램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교육부가 지정한다.

‘키즈라라’는 지난 2023년부터 광주·전남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특히 다양

한 직업체험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화순지역 학생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키즈라라’는 2027년까지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기관’으로 활동하며 진로 체험 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 관련 컨설팅을 지원받게 됐다.

2023년 3월 개관한 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 ‘키즈라라’는 30여개의 직업을 실제에 가까운 형태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중심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직업을 체험해보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만큼, 어린이들의 교육공간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소방관과 경찰관을 비롯해 유튜버, 치과의사, 은행원, 조종사, 승무원, 아

나운서 등 30여개의 직업을 실제에 가까운 형태로 체험해보고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문광부대표이사는 “키즈라라 어린이직업체험관은 교육과 재미가 결합된 에듀테인먼트 시설로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창의적 통찰력을 가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키즈라라’ 직업체험관 이용을 원할 경우 교육부의 진로체험 전산망 ‘꿈길(www.ggoomgil.go.kr)’ 또는 키즈라라 고객센터(1600-7953)로 신청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광주시, 전통시장서 설 장보면 최대 30% 환급

27일까지 대인시장 등 9곳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

설 명절을 맞아 광주지역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30%를 환급받는다.

광주시는 23일부터 27일까지 지역 내 전통시장 9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2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에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수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게 된다. 단, 1인당 농축산물은 2만

원, 수산물만 2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시장, 말바우시장, 우산매일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6곳에서 진행된다. 수산물 환급행사는 남광주시장연합, 양동전통시장연합, 무등시장, 말바우시장, 송정매일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6곳에서 열린다.

구체적으로 구매 금액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는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시장에서는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수축산물을 구매

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주최회 경제창업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침체된 민생경제가 되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달간 디지털(카드형·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 중이다. 1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는 카드형과 모바일 각 200만원이다. 노병기 기자